

‘노하우·기술력’ 바탕 전통 계승·먹는 즐거움 선사

광주·전남중기청, 백년가게·소공인 34곳 선정

“성공모델 확산 중요...정책 등 지속 성장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 2차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결과 백년가게 17개사, 백년소공인 17개사가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백년가게가 광주 9개사, 전남 6개사, 제주 2개사가 선정됐으며, 백년소공인은 광주 4개사, 전남 13개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백년가게는 광주 46개사, 전남 51개사, 제주 10개사로 늘었으며, 백년소공인도 광주 26개사, 전남 18개사, 제주 1개사로 증가했다.

‘백년가게’는 한 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백년소공인’이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말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로 전통을 계승하면서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곳이다. 수 선정됐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새송정’은 35년 동안 오직 떡갈비 한 메뉴만을 고집하며 명실상부 떡갈비 전문점으로 거듭났다. 실제 ‘새송정’을 운영하는 오명숙 대표는 전통음식 대한민국 한식대가로 국제음식대회 떡갈비부문 1위, 광주 김치

축제 1위 등 30여회의 국내외 대회 수상 기록과 전통장류제조사, 김치교육지도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백년소공인 또한 무려 4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창의적인 기술과 고유한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가는 장인들이 선정되는 등 눈길을 끈다.

이 중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40년 동안 목제품을 제작해 ‘우디스’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됐으며, 목제가 공방법 중 화전가공기술(환투축면절삭가공방법) 특허를 획득하고 곡선절삭기법을 적용한 표면장식기법 개발을 통해 가구제

작, 목공예분야 응용기술 폭을 확장해 온 소공인이다.

보성에 위치한 ‘미력옹기’ 또한 300년 동안 9대에 이어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옹기 명가 중 하나다. 미력옹기는 전통옹기의 제조법을 그대로 보존하고 터널식가마에 오랜시간 숙성시켜 전통옹기를 그대로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일한 남도 고유의 찻바퀴 타래(판장질) 기법으로 옹기를 제작하는 소공인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올해 신설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420만원을 지원받아 노후 사업장 환경 개선과 더불어 비대면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대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지금일수록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등의 성공모델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정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마트산업노조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질 투기자본에 의한 홈플러스 폐점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9월 지역 중기 경기전망 ‘먹구름’

SBHI 지수 76.5

4개월 연속 하락세

내수 부진 등 영향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지난 5월 상승세가 꺾인 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 중소기업 9월 경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황 전망 건 강도지수(SBHI)는 76.5로 전월 79.5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중소기업 103개, 비제조업 131개 등 총 23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평균 지수는 78.0으로 광주전남 대비 1.5포인트 높다.

지역 중기의 SBHI 지수는 올 1월 69.4를 기록하는 등 70이하로 떨어진 뒤 2월 79.3, 3월 83.7, 4월 92.5 등 4개월 연속 상승했다 5월 들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지수는 100 이상이면 업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음을, 그 반대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6.7)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5.2, 전남은 전월(84.0)과 비교해 5.4포인트 떨어진 78.6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84.6과 68.1을 기록하는 등 각 0.7포인트와 5.7포인트 하락하는 등 비제조업의 하

락 폭이 제조업보다 훨씬 컸다.

항목별 전망으로는 내수판매가 78.5에서 74.5, 수출은 83.3에서 81.0, 경상이의 75.4에서 68.9, 자급사정 74.6에서 70.1 등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경기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중기의 주된 경영여로(복수응답)로는 내수부진이 61.7%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이 49.0%, 인건비 상승이 49.0%, 업체간 과당 경쟁이 46.6%를 기록했다.

한편 7월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69.9%)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68.8%로 전월과 비교해 0.8% 낮아졌으며, 전남은 70.6%로 0.3%포인트 증가했다. /오지현 기자

“규제완화 참사 전금법으로 덮으려 해”

광주은행 노조,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광주은행을 비롯한 전국 지방은행 노조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에 따르면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선부터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전금법 개악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은행노조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을 목도하고도 선부터 규제 완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이런 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전금법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

결제업 신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에게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채워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지역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을 약화시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방자금을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미애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광주상의, 16일까지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16일까지 ‘2021년 광주형일자리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인증은 관내 기업 중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준수와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

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더불어 금융·세제·행정적인 인센티브 14종이 제공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광주형일자리 인증사업을 통해 코비코주, ㈜대우에이텍 등 총 14개사가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지원받은 바 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내 노사상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발굴하여 인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내 노사 화합과 상생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7월 광주 주력분야 자동차 부진 광공업 생산 줄었다

전남은 화학·1차금속 호조 생산·출하 늘어

광주·전남지역 7월 산업생산 활동 실적이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엇갈렸다. 광주는 주력인 자동차 분야 부진으로 감소했지만, 전남은 화학과 1차 금속 분야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7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1% 감소, 3.0% 증가했다.

제조업 경기 지표인 광공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가운데 기계장비·음료·섬유제품 등은 감소했지만 자동차·고무·플라스틱, 전기 장비는 증가했다.

광공업 출하는 3.0%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담배·식품품 등은 줄고 전기장비·기계장비·전자부품 등은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1.2로 24.3% 증가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각각 35.8%, 13.8% 늘었다.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28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3% 감소했으며,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2조9,298억원 대비 0.2%를 차지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증가로 956.4% 늘었지만 민간 부문은 부동산·건설업 등의 감소로 88.7% 감소했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 0.2% 늘었다.

재고는 9.9% 증가한 가운데 1차 금속·비금속광물·금속가공 등은 줄었지만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식품품 등은 증가했다. /오지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